

제426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5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1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 1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 1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2.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89)
3.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0)

(14시05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경기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기반 시설의 재해 예방력 제고, 식품기업 경영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중심으로 6개 사업, 총 1862억 원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경기 지역의 대설 피해, 올해 3월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의 경영 조기 정상화와 산란계 농가 시설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용자사업에 총 22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기반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 SOC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누수와 붕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보수가 시급한 수원공, 용·배수로를 중심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1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배수로, 배수펌프장 등 기반 시설을 보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2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강도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222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태풍·해일 등에 대비하여 국가관리 방조제를 보강하기 위한 국가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5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식품기업의 생산비 부담 완화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용자사업에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836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대비 어항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을 보강하고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77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마른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 건조기 교체 지원에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 또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추경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요약보고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 배수개선 사업은 모두 농업 SOC 사업으로 14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이월이 나타나지 않도록 추경자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상단입니다.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은 20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동 사업의 정책지원이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 증가 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농업 분야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업 민생사업에 대한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최선영입니다.

해수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소관은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836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SOC 사업을 통한 경기침체 대응과 김 수급의 안정 도모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SOC 사업을 보면 첫째, 국가어항 사업은 약 270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실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일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일반항의 내역사업인 흑산도항 개발 사업 등은 최근 2년간의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므로 적기 준공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김 수급의 안정을 위한 가공설비지원사업은 6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최근 들어 물김의 폐기량이 증가하고 마른김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므로 노후화된 김 건조기를 교체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번 추경안은 지방비와의 매칭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편성된 만큼 그 외 지자체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의 수요 여부 확인과 향후의 사업 규모와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원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간사님.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추경심사에 들어가고 또 소위에서 증액심사를 할 예정인데 두 분 장관님들께 또 차관님들께, 이번 추경의 중요성과 절박한 문제를 잘 인식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농식품부장관님께도 제가, 사실 장관님도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농민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임이라고 하는 인사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정말 어떤 실용적인, 실질적인 그런 것을 취하겠다는 대통령님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만 장관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1년 6개월 가까이 농정

을 이끌어 오시면서 겪어 왔던 일에 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찰과 또 입장, 태도, 주요 입법 과제, 정책 과제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이 저는 적극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장관님이 이겨 내고 돌파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단체들과의 어떤 소통과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희 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 주요 입법 과제인 양곡관리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또 우리가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농정을 재설계해야 된다고 하는 핵심 정책들,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한 핵심 정책들에 대한 추진 의지가 흔들림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태도를, 오늘 추경심사에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과 태도를 잘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마지막에 농업단체들과의 어떤 소통을 잘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저희 당과도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3년간 해 왔던 주요 핵심 과제와 입법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저희들도 장관님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하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어기구** 농림부장관님, 이원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야말로 우리 농업·농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엄중한 시기라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큰 책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보여드려야 되는 대목이, 말로 몇 마디 하고 넘어가는 면피성 이야기가 아니라 보여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여당·야당이 바뀌었지만, 저는 일관되게 제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농가의 경영 안정 그리고 소득 안정 이런 측면이 기본이 돼야 국민들한테 먹거리의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법률안을 제안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전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특히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정철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간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유연한 실용주의 그리고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들한테 먹거리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철학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하고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오로지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오늘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추경심사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추경심사 관련 서면질의 자료는 오늘 전체회의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 질의한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은 내일 본회의 산회 직후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포함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이원택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도 해 주셨고 추경이지만 장관님, 중요한 사안이라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유임된 것을 두고 여야 위원님들은 물론 농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도 반발과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려하는 것이 그간 민주당이 쌀값 폭락 시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법 그리고 농안법 그리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런 법안이 상임위에 의결이 되면 장관님께서는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고 또 농업을 망치는, 방금 말씀하신 농망법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런 법들을 법 자체가 아니라 재해 수준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까지 건의해 오셨는데 그런 장관님께서 이렇게 농촌을 망치는 농망법을 이제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간의

소신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재의요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당시에 제안됐던 그 법률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한 상황에서 그 부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과잉생산, 그러니까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해야 하는데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품목의 쏠림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그러면 농망법이 그런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관님이 농망법이라고 지난해 연말에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망법이 되는 것으로 진짜 바뀌는 건지 그것을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희망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김선교 위원** 어떻게, 하우 투(how to)가 방법이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게 현장의 농업인들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맞춰서 좀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제대로 당기질 못했어요, 그동안.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예, 또 1회 추경안도 역시나 그렇고. 그리고 또 2회 추경안도, 이번에 올라온 것도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농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농민을 바라보고 일한 게 솔직히 탁 터놓고, 농민을 바라보고 일한 게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탁 말씀을 해 보세요. 한 세 가지만 대 놔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일이 농민을 위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기준으로 일을 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자, 1회 추경 때 2개 사업이 소비자를 위한 예산만 세우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정부안으로 왔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서 우리가 무기질비료 사업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안에도 지금 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도 재정 당국하고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용 면세유 이번에 담기지 못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의 요구가 큽니다.

○김선교 위원 그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리고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담겼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료비 지원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담기지 않고,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그런 것을 꼭 담겨져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런데 담기지를 않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오늘내일 국회 단계에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우선 정부안이 올라가야지요.

○위원장 어기구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먼저 농식품부차관님, 이번에 2차 추경안에는 농업 민생 예산이 대폭 빠졌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농사용 전기요금, 후계농 농업자금 이차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면세유 유가보조금, 콩 비축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채소가격 안정 예산 등 민생 예산이 대폭 반영돼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농업 민생 예산이 추경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마련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전종덕 위원 임기하신 지 거의 2년여 돼 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년 반 됐습니다.

○전종덕 위원 1년 반, 2년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할 때 토 달지 말고 제 얘기 듣고 말씀하십시오.

돼 가는데 그동안 그 막말을 하셨던 또 농업을 과탄시켰던 사과 한마디가 이제서야 나왔네요. 참 목이 타고 답답하네요.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지, 참 그렇습니다.

들으십시오. 농민들은 ‘남태령을 넘으니 송미령 장관이 나오더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실망, 송미령 장관 유임에는 절망, 농업 폭망’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하라고.

어제 기자회견문 제가 직접 읽어 드리겠습니다. ‘송미령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업은 완전히 과탄 났다. 쌀값 20만 원 약속을 뒤집으며 역대급 쌀값 폭락을 방관했다. 저관세·무관세 수입 농산물 무차별적으로 들어와 국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켰다. 폭등하는 생산비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펌웨하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농업 민생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막말로 비아냥거렸으며 식량자급률 운운하면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에 달하는 면적을 강제로 감축하여 쌀 생산 기반을 통째로

붕괴시키고 있다. 수입안정보험을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재해 관련 예산을 대폭砍감했다. 식량 생산의 근간인 농지 규제를 풀어 농민들을 쫓아내고 투기자본의 배를 불렸다. 보여 준 소신이라고는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것뿐이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하십니까? 한겨울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9067만 6000원, 79만 8000원, 3818원, 4500만 6000원. 무슨 숫자인지 알 겁니다. 작년 농업소득은 967만 원으로 그 전년보다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채는 4500만 원으로 6.3% 늘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었습니다. 농민의 삶이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임기 동안 펼친 농정의 결과이고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장관을 유임하겠다는 것은 농민들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앞으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탕평인사, 통합인사 말씀하셨는데요. 왜 농림식품부장관입니까?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송미령 장관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사퇴가 답입니다. 정말 농업·농촌을 생각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의 농업·농촌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송미령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농업을 살리는 거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180도 입장이 바뀝니까? 이렇게 철학도 소신도 고무줄이고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장관을 누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행정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신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장관님은 수시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제 이야기 끝나면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이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란 농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고 농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송미령 장관 즉각 사퇴하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임호선 위원** 새 정부의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

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그렇게 가져 주시고요. 워낙 추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수부장관님도 함께 좀 봐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추경에서 중심이 된 건 소상공인 부채 탕감인 것 아시지요? 그 규모가 1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 채무조정할 때 심각한 농가 부채 부분 논의됐습니까, 여기 논의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업인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대상은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 채무 일괄 소각사업 4000억 원 중에 농민은 가능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것 규모를 정할 때 농민의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금융위랑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안 들어갔지요? 증액도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총예산에 대해서는 농민도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지금 캠프 출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7000억이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농어민이 대상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 단계에서 농림부, 해수부 입장 사전 조정 안 된 부분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이 앞서 농어가 부채 부분, 소득 부분 지적하셨는데 그 표 한번 넘겨 봐 주세요.

2021년도에 1296만 원 하던 농업소득이 957만 원으로 3년 사이에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평균 부채 한번 보십시오. 3659만 원인데 거의 1000만 원, 4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농어가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을 보여 주고 있고요.

금융위기도 또 심각합니다. 보시면 농·축협의 연체자 수를 보세요. 2021년도에 40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800, 2배 이상 늘었어요, 연체자 수가. 연체 총액은 2021년도에 3200억 원 하던 게 1조 1100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통계를 인용하

는 까닭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농·축협에만 7년 경과 5000만 원 이하, 앞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간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농·축협의 연체자만 5283명, 농민이라고 봤을 때 한 5000명 정도, 총액 457억. 그런데 이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파악해 보면 아무리 못 해도 1000억 이상은 지금 농어민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 할 때 왜 우리 농가부채 문제는 안 다루어졌지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지금 하여튼 농민들도 대상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럴 때 금융위랑 저희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금융위랑 그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담긴 게 1조 1000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농어민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담을 때 그것을 통계적으로 적어도 농어민이 이렇게 부채 탕감의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 돈으로는 소상공인 구제는 가능하지만 농어민에 대한 구제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사전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담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에서도 그 규모를 정확히 데이터를……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지금 수협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인용을 못 한 거거든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지난 추경에서 증액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 도축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1년 치로 넣어서 조금씩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것 다 더하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이 전기료만 해도. 그런데 이게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안정에 꼭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것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좀 국회 단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송미령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강명구 위원** 이번 정부에서 장관직을 이어 가시게 됐는데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회주의적 처신이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들어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들어 봤습니다.

○**강명구 위원** 지난 정부에서 양곡법, 농안법, 한우법 여러 차례 반대 의사 밝히셨고 대통령 거부권도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강명구 위원** 이번에 유임되시면서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명구 위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명구 위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해 왔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재의 요구할 적에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안을 좀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강명구 위원** 농업 4법 그냥 그대로 반대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농업 4법에 대해서……

○**강명구 위원** 농망 4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래서 정말 그 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아니, 장관님께서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셨던 내용이에요.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농업의 미래를 망치겠다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강명구 위원** 대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강명구 위원** 그러면 진작에 왜 대안을 안 내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명구 위원** 수정안을 만들든 타협안을 만들든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장관님, 소신까지 바꿔 가면서 농업의 미래를 망치려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소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위원님.

○**강명구 위원** 장관님 스스로 돌아보시고요. 그동안 소신을 갖고 일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농업 4법 반대해 오신 것 맞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위원님.

○**강명구 위원** 대통령을 설득하시고 정부 여당을 설득해야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위원님. 소신을……

○**강명구 위원** 대통령 설득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정부 여당 설득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설득도 못 하고 소신도 버리면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소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강명구 위원** 다시 법 개정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면 사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강명구 위원** 너무 기회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우리 장관님 사퇴하시는 게 정부 여당이나 정부 야당에도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 소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농업인과 우리 농촌과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대안이 뭘까 이것만을 고민합니다.

○**강명구 위원** 그 대안이 뭘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 소신은 그것입니다.

○**강명구 위원** 그 대안을 왜 진작에 준비 안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준비를 해 오고 있었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명구 위원** 저는 장관님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고요. 말씀하신 농망 4법을 계속 반대하시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재추진하신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도형 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조경태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중국은 잠정조치수역 내의 우리 양식 시설 그리고 해양 관리 구조물이라는 명목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장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강명구 위원** 이 행위가 단순한 어업 활동의 차원을 넘어 가지고 해양 주권 침해 그 다음에 한중 간에 오랫동안 쌓아 왔던 신뢰 관계 훼손, 국제법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정부 1차 추경안 때 600억 규모 서해 대응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결위에서 다 삭감, 없어졌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2차 추경안에도 결국 반영되지 못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번 2차 추경에는 반영되었습니까? 안 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반영 못 됐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해수부가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연구용역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 전략 고민 중이라고만 얘기한다는 건 실제 준비하지 않는다라고밖에 판단 안 되는데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자체적으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증액을 좀 제기를 해 주시면 1차 추경 때와 같이 저희 부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장관님, 이게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서해 주권 의지가 없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반응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우려를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반드시 예산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해양 주권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정부는 정권의 이해나 외교적 부담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송미령 장관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민들의 반응은 혼란스럽다, 어쩌면 좋지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황에는 상황마다의 역사가 있고 그 상황을 인식한 인간에게는 인식의 역사가 있다. 그 인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장관님의 더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반대하신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그래서 오늘도 일부 농민 단체들이 저희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찾아오고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빨리 해소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장관과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장관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 달라야 되는 기점이 어쨌든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까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부권을 권유하면서도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실행을 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과거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윤준병 의원님의 개정안 발의가 있었고 또 저도 발의했습니다. 재배면적 조정과 시장경제를 연계한 법안을 발의한 것 기억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입장이 있는지 그리고 농어업재해 대책법과 관련해서는 생산비를 보전한다는 원칙 그리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에는 거대 재해인 경우에 재해로 인한 피해에는 할증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것들이 핵심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짧게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배면적 조정이 양곡관리법, 그러니까 그냥 그런 조건 없이 의무 매입하는 것의 부작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재배면적 조정이 사전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파……

○**문대림 위원**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금 2건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맞습니다. 10여 건 중에서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어서……

○**문대림 위원** 어쨌든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대안을 준비하면서 재정 당국하고 먼저 협의하는 게 사실 법률의 실행을 위해서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장관님이 또 하나 고쳐야 될 게 뭐냐 하면 농업 문제를, 농업 예산의 문제를 재무적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라,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필수농자재 지원법과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농업경영체 육성법 개정으로 이미 조항이 마련되어 필수농자재법 제정의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실상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농사용 전기요금, 도축장 전기요금, 면세유 지원예산 전부 다 기재부에 칼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말씀 주시는데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서 농민들이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

해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이게 저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태도를 분명히 바꿔야 된다. 항상 재무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저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제가 경험하기에는 장관님이 좀 투사 같은 이미지였어요. 이제는 처음 제가 강조했듯이 스펜지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의 보여집니다. 위원과 정부부처를 거중 조정하고 농민들과 정부부처를 거중 조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여야 간의 원만한 협력 그리고 농업계와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을 보여 줘야 된다. 농업계 지도자들을 조속히 만나셔야 되고 또 현장을 찾아 주셔야 되고 더 건강한 협치를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차관님도 그렇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앞 전 회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콩 관련 얘기입니다, 장관님.

일선 회원조합에서 정부 콩 재배 장려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대폭 늘었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삼석 위원** 그런데 두류 비축계획에 따라 콩은 매년 6만t씩 비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관련 예산이 3만t만 편성된 관계로 3만t은 다시 또 지역조합이 책임져야 된다. 지금 현재 23년, 24년 비축 1300억 원도 지역농협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삼석 위원** 줄 돈도 안 주고 3만t을 책임질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2차 추경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러면 조합이 견뎌 내겠어요? 콩 생산 농가들 의욕이 고취가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하여튼 이 콩 수매 예산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위원님. 농가하고 지역조합 대금 지급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316억은 농협경제지주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서삼석 위원** 어쨌든 일선 회원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불안에 대한 해소를 조기에 시켜 주시기 바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삼석 위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도 중액을 요구할 테니까 장관께서도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여야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절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어려움 속에서도 해수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김산업이 아주 지속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2년 연속 1조 원대 수출을 돌파하는 데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고맙습니다.

○**서삼석 위원** 강 장관의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김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김시장 차원에서 볼 때 필수 기반인 굴 패각이 99%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지금 뭐 단가가 한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서삼석 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수출도 잘되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70%를 유지하고 있고 또 굴 생산도 세계 2위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실정에 걸맞게끔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반되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생산 어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같은데 이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좀 담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삼석 위원** 저는 지도자의 탁월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절반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당선이 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장관이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생각 없이 인사를 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 인사에 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고 또 국민들이 접했습니다.

다만 여야 위원들 또 농민 단체에서 제기하는 그런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서 인사권자에게 누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어서 생산자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입니다.

저는 예결산소위 위원이어서 추경 관련된 건 내일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수부 관련된 현안질의를 할까 합니다.

해수부장관님, 경기 어민의 꽃게 TAC 미배정 문제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일 26일 경기 어선 40여 척과 인천 어선 40여 척이 서해 특정 해역에서 대규모로 해상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보니까 경기 어민들이 김포·시흥·화성·안산·평택 등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서해 특정 해역에 꽃게잡이 30척에 대한 TAC 210t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송옥주 위원** 요구 이유를 보니까 그동안 많이 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경기 바다가 조업이 가능한 그런 바다가 넓어서 꽃게 TAC 배정을 요구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양식장들이 늘어나면서 조업 가능한 바다가 매우 좁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꽃게를 어획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도 있고요.

또 옆 지역하고 비교를 하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잔여 물량을 배정받고도 1620t이나 잔여 물량이 남아 있고 또 2023년에는 잔여 물량이 1500t이나 남아 있는데 경기 지역으로 이 부분을 좀 이전 배정을 하자 그랬더니 그런 것도 추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또 충남 어민을 보니까 최근에 10척에 대해서 꽃게 TAC 80t을 신규로 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만 소외된 게 아니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규정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규정에는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규정을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송옥주 위원** 총허용어획량의 운영 및 관리 지침 9조에 전배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배의 부분 이전이나 완전 이전을 통해서 어획 실적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게 규정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선단연합회나 통발협회 등에다 물어봤더니 이게 제대로 이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분들이 내일 시위를 벌인다고 하니까 만나 뵙거나 연락을 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관리 지침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이 있다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동감하고 있고요. 우선은 자원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업종별 지역별 갈등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을 제도개선 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갈등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개선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TAC 물량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천호 위원** 금년 2차 추경안 전체가 얼마 정도쯤 계상이 됐지요? 전체 예산이 추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차?

○**서천호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추경안이요? 20조……

○**서천호 위원** 20조 2000억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20조 2000억.

○**서천호 위원** 농림식품부 예산이 1862억 원, 아까 보고하셨는데 1%가 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서천호 위원** 19일 날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 이번 2차 추경을 놓고 ‘농민이 없는 추경이다’ 성명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게 농심입니다. 지금 현재 바라보는 농심인데, 실제로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1차 추경에 비하면…… 1차 추경은 물론 산림 화재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4.2%까지 배정이 됐는데 0.8%예요.

농림식품부나 해수부가 민생경제 부처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경제 부처 맞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비상경제점검 TF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그 회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두 분 다 참여를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저희 부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천호 위원** 농림식품부가 주요한 경제 부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행정명령으로 발한 비상경제점검 TF의 일원으로 참석을 못 한다? 저는 이번 2차 추경을 보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농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저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천호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위원들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요. 정부의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방금 장관님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한 경제 부처입니다, 두 부처는. 또 물가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처이기도 하고 민생과 관련된 부처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또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빼져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것 왜 이럴까 참 저는 의아합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업계에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이 농사용 전기요

금 차액 보전하는 사업 문제, 도축장 전기요금,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문제 또 좀 더 나아가자면 원유별—소위 축산업계가 되겠지요—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 지원 예산 문제. 도축장 전기요금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이게 다 합쳐도 610억밖에 안 돼요. 이것 왜 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장에서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그 내용은 장관님 알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는 이유로 물가 또 민생, 소비 진작 이런 걸 내세워서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1000억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왜 뺐을까? 저는 지금 정부가 농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앞으로 장관님께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림 분야는 법률보다는 정책으로 많은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많은 현장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정책에 대한 소위 신념이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국의 항만 발전을 위해서 현지 시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 주셨고 특히 우리 평택항을 두 번씩 방문하셔서 장기 발전에 있어 초석을 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해양수산부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갖고 장관님의 뜻이 계속 면면이 이어져서 실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장관님, 지난 추경 때 서해 중국 구조물 대응에 관한 예산을 다 통과시켰는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605억 원을 통과를 시켰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병진 위원** 용역비하고 1개에 600억.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1차 추경에서 저희가 드롭되면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안에 72억을 우선 정부안으로 담았고요. 거기에 타당성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넣어 뒀는데 만약 이번 2차 추경에 담는다면 1차 추경에 했던 것처럼 전투적으로 저희가 재정 당국과 얘기를 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도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진 위원** 노력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우리가 그래도 받고 있어요. 전략적 균형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추 국가 역할로 발돋움 할 수도 있고요, 동북아에서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해양주권 문제는 우리가 1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2018년 이후에 하나로 끝날 줄 알았더니 우리가 그때 소리 높여 외쳤지만 또 식다 보니까 또 만들고 만들고 해 가지고 나가고 있다, 비례 대응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고 특히 우리 야당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소위원회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부처에서도 거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두 번째, CCTV 문제 제가 네 번째 지금 제기하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 평택당진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항에 세계 최고의 미군부대, 여의도의 4배 캠프 험프리스가 있고 바로 옆에 해군 2함대사령부가 있어요. 미인증 CCTV가 188대가 있고 평택당진항에 75대가 있어요. 이게 5억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빠져요. 왜 그럴까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재정 당국에서는 민간에서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요. 이번에 한번 담아 주시면 다시 한번 더 트라이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예, 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중앙서버에서 백도어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중국의 첨단기술은 미국도 지금 몰라요, 솔직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이걸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더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지시받으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어떻게, 지금 12월까지 이전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연내 이전을 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요. 연내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추진단에서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감탄도 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가가 3100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일이 지금 거의 2주 사이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추경안에도 해수부 부산 이전 비용을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2029년까지 이전 비용을 1415억으로 원래는 담아서 보고한 것 같은데 맞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 비슷한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신축 비용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임대 형식으로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임대

만 한다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지금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 면적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임대해서 간다면 임대할 수 있는 빌딩이 있는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24시간 돌리고 있는 종합상황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보안·안전 관련된 장비로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사실은 통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약 900명 정도 되는 식구들이 내려갔을 때 한꺼번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산광역시하고 차분하게 자세하게 부지를 보면서, 빌딩 보면서 가능한 데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고요. 꼼꼼하게 저희가 단계 단계별로 봐 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진 위원** 윤석열 대통령실 이전은 두 달 걸렸거든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제가 20대·21대·22대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다 농해수위에서 일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농해수위는 여야를 떠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또 어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익과 권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해왔는데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마는 대수가 갈수록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대립되는 면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목표를 우리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추경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재정 당국에서 이번 추경에서 농림부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나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어떻게 추경을 편성해 올 것인지, 편성을 해 와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제한이 없이 그냥 각 부처가 연구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처음에는 추경 편성 방향을 기재부에서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방향에 맞춰서 부처에서 사업안들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재정 당국은 전체를 보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고르는……

○**이만희 위원** 아마 거기에서 보면…… 각 부처가 처한 입장에서 현재 농림부 같으면 농업인의 입장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걸 제일 잘 알 것이고 재정 당국은 아마 그보다는 좀 늦어질 거란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1800억 가량의 배정 내용을 보면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2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사업, 농촌용수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이번 2차 추경에 주요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지난 3개년도를 돌이켜 보면 이월 금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분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지난 3년간 이월된 금액이 3700억이 넘는다고요. 이건 무슨 말, 이월이 왜 발생하는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주어진 예산도 제때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 금액이 많은 그런 분야에 또다시 시급하다고 하면서 추경을 넣는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과연 이게 추경의 이번 편성 방향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것 또 경기 회복의, 어떤 모멘텀을 회복한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성격의 돈, 현찰도 지급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얼마나 농림부 추경에 긴급한 사항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잖아요. 농사용 전기의 차액 보전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도축장 또 무기질비료 좀 더 확대하는 것, 하다못해 우리 초등학생들 과 일 간식 같은 것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산림청도 없지만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산불에 의해서 남은 피해목 같은 것 다 제거하고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추경들이 더 많이 비용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해수부도 모두 그냥 어항들 개발하고 사업하는데 더 보태는 그 비용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재정 당국에서 ‘이번에 금액이 한 2000억 정도 농림부에 배정되니까 당신들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 해서 빨리 올리세요’ 이러면 올라가는 게, 보통 추경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 정도 되면, 본예산 편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음에 추경이 왔을 때 우리가 빠진 게 뭐가 있는가 챙겨서 그 리스트업을 평상시에 해 놓으십시오. 해 놓고 그걸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경해 가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어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경의 성격에 맞게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다만 아까 보여 주신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많이 되는 게 농특세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항상 중요한 사업들을 본예산 말고 추경에 하는 경우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 늘 리스트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추경 끝나고 나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해야 되는 것들도 현장 수요 감안해서 챙기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 위원** 저도 예결소위 위원이라서요. 내일 할 때 좀 더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많

은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두 분 장관님께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맞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조경태 위원** 왜 제가 이름을 풀네임을 했는가 하면 식품부까지 담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새로 장관님을 유임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소비자물가가 세계 2위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보여 드렸잖아요.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봤습니다, 위원님.

○**조경태 위원** OECD 국가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이 무려 47%가 높아요. 그리고 독일이 1인당 GDP가 5만 한 3300불인데 우리나라 3만 5000불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OECD 지수의 약 한 100에 가깝습니다. 세계 20위쯤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의식주라고 했을 때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과연당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음식료품의 가격을 잡지 못하면 저는 정부가 무능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지금 빠진 게 음식료품에서 과일값이 빠져 있거든요. 과일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소금빵에 대해서, 제가 한 사례를 듣는데 이걸 마치 장난 비슷한 가십거리처럼 했는데요. 먹고사는 문제를 가십거리로 언론에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조경태 위원**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 일본보다 우리 물가가 빵 종류만 하나만 놓고 봐도 세 배가 비싸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료품 가격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것 꾸준하게 지적해 주신 것 저 잘 알고 있고요. 농식품부 내에 물가안정을 위한 TF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구조 자체를 바꾸

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빵값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5위 안에 드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이것도 잡아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아니, 일본도 밀을 수입하고 우리도 밀을 수입하잖아요. 그렇지요? 따져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훨씬 넓어요. 어찌 보면 가격으로 치면 유통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비싸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조경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비자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본인들의 수입보다도 훨씬 더 먹고사는 문제, 식료품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이것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물가 제대로 좀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마지막까지의 책무가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다면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아직도 담지 못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연구용역비 10억이라도 반영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 오시기 전에 두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해 주셨고……

○조경태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조경태 위원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정부안으로 내년 예산에 담아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시가 바쁜 예산이다 보니 이번에 담아 주시면 저희가 또, 재정 당국이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중국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아니, 중국이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했던 공동수역에다가 지장물을 갖다가 구조물을 그렇게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느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우리가 내일모레면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우리의 자주독립을 위해서라도 그런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국회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도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원택 위원 오늘 이 시간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아마 과정 과정이 가시밭길일 겁니다. 과거에 장관님의 발언, 입장과 태도가 있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과 정책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가시밭길이고 발언 과정 과정마다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장관님께서 그걸 잘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전환과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를 제가 좀 촉구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원택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고충과 또 당면한 어려움까지 다 판단하고 하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가는 주체는 장관님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추경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농사용 전기요금 또 시설농가 면세유 문제 또 콩 수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 지금 논콩 재배면적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리고 거기 미정산 부분도 있고 미정산 부분에 따라서 이자 부분도 있고. 이것 현장에 가면 아주 심각하거든요. 비축 지원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문제 또 농식품바우처 문제, 이차보전 문제 등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을 할 텐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원택 위원 이것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추경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무리까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 저희들도 힘을 모아서 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

아까 농가 부채 탕감 문제 관련해서 농민도 대상인데 사실 그 안에 어떻게 설계가 돼 있고 어느 정도인지를 좀 농식품부가 빨리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농민도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홍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 부채 탕감의 기준과 절차, 그 안의 설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원택 위원 아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부채 탕감 되는데 농민이 빠졌다 이런 상황이 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연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

것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장기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도 이 규모, 이 범위에 속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대상이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보좌진들 통해서 자료 요청하고 체크해 보는데 농식품부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인식을 받았어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더 쟁기겠습니다, 위원님.

○이원택 위원 제가 피드백 받은 바로는 '거기에 해당사항 없는데요' 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이원택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것 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원택 위원 민생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관련해서 농민들께서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걸 다 탕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과 한도가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연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원택 위원 그걸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이나 양식장 재해대책비 또 재해보험과 관련된 부분 참 해결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번에 92억 또 전기 인상분 우리가 할 수 있게 추경을 올렸는데 또 아쉽게도 안 돼 가지고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참 넘사벽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 산림청 식구가 와 있나 모르겠네.

송이대체작물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경북 쪽에 사실 이번 산불피해로 인해서 송이 관련된 피해가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데 거기에 대체작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이게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체작물 관련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어기구 1차 질의가 마무리됐는데요.

2차 추경,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장관님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지금 2차 추경 목표가 경기진작하고 민생안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많이 힘들지만 우리 농가, 어가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 분 장관님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농민들을 위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민생 추경을 하나 소개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농림부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좀 전에 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영비를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축장 전기요금이랑 농사용 전기요금 그다음에 유류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콩 수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위해서 다른 사업도 반영이 좀 일부 되기는 했지만 또 국민들 전체 차원에서 하면 과일 간식 같은 것들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그런데 왜 그런 중요한 지금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업들이 바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경영비 절감……

○**위원장 어기구**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왜 이번 추경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됐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위원장 어기구** 그 추경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까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통상은 방향을 먼저 제시하면 저희 부처가 사업 리스트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에서는 전체를 보면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좀 추리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리고 재정 당국에도 맨날 끌려다니면서 맨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민들, 어민들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도 무슨 정책 기조가 바뀐 게 없어요. 추경 그냥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올라오고.

지금 농업 쪽 부문 추경 보니까 6개 사업에, 아까 이만희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1862억, 6개 분야 했잖아요, 사업. 그렇지요? 거기에 융자사업 두 번 빼고는 다 SOC 사업이에요, 1438억이. 거의 77%가 다 SOC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공무원들은 다 뭐 한 건지 이 방송을 보는 농민들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다음에 해수부도 마찬가지예요. 해수부 이번 추경 중에 우리 어민들, 힘든 어민들을 위한 추경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번에 아쉽게도 김 건조기 지원사업 하는 것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재해 대책 관련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농가부채 부담 덜어 주기 위한 제도라든지, 우리 농민들도 부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시는지 그다음에 농가, 어가들이 정말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왜 정부에서 사전에 대응을 못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재정 당국에서 반대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농업, 어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공부. 방향이 뭔지 철학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농민, 농업 그다음에 어촌,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손 붙잡고 정말 열심히 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2차 추경, 새 정부 들어와서 첫 추경인데 추경 편성한 것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서 한말씀 거들었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순서인데요.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종덕 위원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송미령 장관님, 장관 유임이 결정되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식량주권은 국가안보다, 남태령 정신 계승하겠다, 국가 책임 농정 하겠다, 쌀 의무수입량 감축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송미령 장관님이 그동안 주장했던 소신과 철학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소신과 철학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 출세주의, 보신주의 저는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송미령 장관께서는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했습니다. 침묵도 방조입니다. 범죄인 거예요. 사퇴를 넘어서 이것은 수사 대상입니다. 송미령 장관님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침묵할 때, 그렇게 자기 살길 찾고 있을 때 농민들은 그 추운 겨울에 트랙터를 몰고, 농민들에게 1호 재산 아닙니까? 남태령 영하 11도, 12도 된 염동설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자고 한 계절을 다 거리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과연되자마자 송미령 장관님 어떻게 했습니까? 벼 재배면적 강제로 감축시키고 공무원들 불러서 점검하고, 이게 장관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진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통령 바뀌니까 확 바뀌어요?

저는 장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민들 생각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관님이 자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말 농정 개혁해서 정말 농민들 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만들자고 한 거예요. 양심과 도덕이 없는 실용주의 인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하고 농민들에게 고통만 줄 뿐이에요. 내란 세력들에게는 용기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숙하면서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받으실 거잖아요. 저는 장관님께서 자진 사퇴하시고 자숙하면서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전종덕 위원** 이런 상황인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떤 특정 업종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국민……

○**조경태 위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5200만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우리 농업인분들에 대한 지원 이것은, 축산인에 대한 지원 저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품에 대한 가격 이것은 꼭 좀 잡아 주시고요. 유통구조 부분도 우리가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을 벌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답을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개월, 필요하면 1년이라도,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반드시 답을 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우리 요즘에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아주 희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반려동물과 같이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500만 정도로……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15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행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데 그런데 지자체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데 지원금액이 좀 있기는 한데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개선 문제들도 많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료 문제, 의료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정을 좀 더 크게 해서 온 국민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국민 전체로……

○**조경태 위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처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장관님, 저희 지역에도 축산농가가 있어요. 도축장도 있고요. 벼를 쌀로 만드는 게 도정이고 가축을 축산물로 만드는 게 도축인데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르면 도정이든 도축이든 어쨌든 이게 농업이 아닌 제조업에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농업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장관님께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글쎄,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장관님,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뒷짐 지고 계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장관님 말씀마다 다 위원님들 논의하시라고 그러는데 장관님께서 뒷짐만 지고 있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축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잖아요.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특례가 작년에 만료돼 가지고 한 30% 정도 지금 더 내는 폭탄을 맞은 거잖아요. 이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전기요금 부담은 도축 수수료 인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도축장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는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지원할 생각은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그래서 현장 수요 많은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재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질의를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전기요금 할인 특례 일몰 연장을 요청했었고 국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해 줄곧 지적해 오신 것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특례가 만료됐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강명구 위원** 어쨌든 저는 농식품부가 제가 봤을 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무기력했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질의 끝났습니까?

○**강명구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하고 이원택 위원님께서 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실제 우리 콩 정책은 쌀 수급관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농정은 쌀만 보고 콩 농가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지적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량 전체로 보면 쌀뿐만 아니라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논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면서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수급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주도의 경우 밭콩 중심의 콩 농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논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밭콩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범수 차관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용역을 언급하셨고 올 상반기 중에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가 버리셨어요.

차관님, 이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국정감사 당시에도 그랬고요 2월 업무보고에도 제주도 밭콩 얘기가 나왔고 용역 안에 반영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저희들이 확인해 봤어요, 용역 안에 이게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전략작물직불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내용에서 밭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주시고 실행은 안 하고 가 버리셨거든요.

장관님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논에 전략작물을 심는 거다 보니까……

○**문대림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제주도 밭콩 농가분들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쌀 농가만 보이고 밭콩 농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논타작물 재배 권장하면서 출지에 피해를 입은 제주도 밭콩 농가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 일본과 입어 협정이 9년째 중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주 어업인들이 800km 이상 동떨어진 동중국해에 가서 조업을 하지 않습니까? 과정에 신선도의 문제도 있고요 위험성의 문제도 있고 실은 또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거리 조업에 따르는 경영비 문제, 채산성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국제 감척, 감척 얘기,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사실은 감척하는 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 쓰지

못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26년에 말씀하시는 그 업종에 대해서.....

○문대림 위원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왜 어가들은 계속 원하지요, 이것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문대림 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감척에 대한 소요를 산정하고.....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어 협상을 안 해서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하에 감척 지원을 해야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감만 하면 뭐 합니까? 좀 하시고 가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7월 달, 상임위원회 추경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추가로 우리가 감척 소요를 받는다면 내년 4월 정도가 돼야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집행해 가지고 감척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불행히도 못 들어갔고 26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차례인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삼석 위원 예.

가축 전염병 긴급방역 예산 지원과 관련 견인데요, 송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구제역이 국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그러면 국가 1종 가축전염병이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방도 하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반반씩 예산을 지금 이렇게 소요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방역 예산을 지자체도 부담을 합니다.

○서삼석 위원 그걸 규정을 바꿔서라도 지자체 부담을 좀 덜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좀 요율도 바꾸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해 왔는데요.

○서삼석 위원 중앙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구제역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것, 노력한 것 그건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영암

군 같은 경우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9%인데 불행히도 11%예요. 이런 지자체한테 반반씩 부담해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제2항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필요하면 개정도 하고 개정안도 좀 내고 국가 제1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 가중시키는 쪽으로 관계 규정도 나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어려운 지자체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조금 살펴 가지고 안 돼요. 많이 살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근데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도 있어서요, 위원님. 저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군이 따지자면 책임이 생산 농가한테도 있을 수 있겠는데, 농가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지자체가 뭐 얼마나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농림부가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봐서 고칠 것 좀 고치고 부담 줄일 것 줄였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5억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한다는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살펴보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힘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 지역화폐가 한 30조에 육박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번 추경안에도 보니까 한 6000억이 담겨 있는데 행안부 사용지침을 보니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제한을 해 두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미도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이라든지 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상당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약이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넓혀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처 협의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행안부랑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천호 위원** 우리 어민들의 수익 창출이나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는 현장 다니면서 계속 느끼는 게 건강 부분입니다.

○**서천호 위원** 건강도 그렇지만 안전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안전입니다.

○**서천호 위원** 생명이나 안전 차원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도 국가어항 보강·유지 차원에서 27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미조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쪽의 전진기지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거기 보면 실제로 태풍은 말할 것도 없고 외곽의 파랑으로 인해서도 접안이 제대로 안 되는 또 선박 간에 충돌이 생기게 한다든지 접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삼척항 수협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아래쪽이 부식이 돼서. 그게 만약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다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건지 부분은 지난번 우리 국회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6년, 내년부터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이것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적게 남았는데 우리 송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천호 위원** 정부 미곡처리장이 전국에 각 한 120여 개 있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정부양곡 도정공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그런데 대체로 이제 90% 이상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지역농협에서 투자를 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예컨대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해를 예를 들면 생산 역량이 예를 들어서 연간 6000t 정도 되는데 정부양곡만 처리하다 보니까 한 3000t밖에 소비를 못 해요. 그래서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농림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병진 위원 우리 정부양곡 공급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31만t까지 줄이기로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이 가공용 원료 쌀 공급 축소로 인해서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업계의 불만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받았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특히 거래처에 납품 불가라든지 그다음에 생산비가 또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국 이게 이제 물가 상승에 또 연동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일부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운영 중단하겠다는 이런 목소리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늘 식량 안보라든지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금 많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그래서 이 정부양곡을 우리가 어떻게 즉시 추가로 공급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이제 위원님 잘 아시지만 또 우리 쌀 산업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신곡을 좀……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그리로 유입하려고 이걸 공급량을 줄이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식품업계들의, 쌀 가공업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양곡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그게 정의 효과가 있으면 부의 효과가 항상 현상에서 발생되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걸 적절하게 공공이 개입해 가지고 조절하는 능력도 리더십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게 공공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업계의 목소리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물가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업계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용의는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저희 과장이 매달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5만t의 정부양곡을 좀 신속히 공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쌀 가공식품 산업계에서 있고 우리 의원실에도 그런 여론을 계속 전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차관님도 오래 봉직하셨

으니까 한번 실무자하고 연구하셔서 우리 의원실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만희 위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에 완성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지시 내용이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연내에 완성을 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요.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이만희 위원** 직접 지시를 받았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라,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만희 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대략적으로 연내에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전체 인원이 한 600명 이상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9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9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옮겨 갈 텐데 거기에 그만한, 어차피 새로 청사를 지어서 가는 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연내에 가라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연내라고 본다면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협의 진행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오늘 아니면 내일 지금 협의가 있는, 차관이 한번 얘기를……

○**이만희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연내 이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직접 계셨던 장관님 말씀……

○**이만희 위원** 검토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당선 이후에 실무적인 검토는 계속해 오고 있고요. 지금 부산에 저희들이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토는 누구랑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게 연내에 가능한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또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정한 곳에서 청사를 새로 지어서 옮겨 갈 때는 얼마나 걸리는 건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저희 의원실에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명을 받은 해수부후보자

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지 또 어쨌든 예산의 중복 사용이 만약에 연내에 한다고 그러면 불가피할 텐데 과연 그럴 만한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검토하는 상황들을 보고드리겠고요. 저희들 하여간 가능한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임호선 위원** 장관님 여러 가지 위원들 걱정들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여성 장관님이라고 하는 부분도 유임에 많은 주요 고려 요인 중의 하나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재임 중에 여성 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챙겨야 될 분야 아닌가. 특히 출산·육아 대책, 아시겠습니다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하면 210만 원씩 석 달을 지원해 주거든요,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은 100% 정부 부담이에요. 거기에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80만 원을 더 얹어 줘요,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거의 300만 원 돈을 석 달 받는 거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160만 원인가를 또 받아요.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돈을…… 근데 우리 농업인은요? 못 받아요. 소득증명을 했을 경우에 50만 원 석 달, 150만 원 주는 게 다거든요. 농업인뿐만 아니라 그건 프리랜서라든지 다 고용보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소득증명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임호선 위원** 근데 농민 같은 경우에 소득증명 하기도 어렵고, 특히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마저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차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성 농업인한테 애 낳아서 잘 키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제 농촌에서도 우리 애 낳아서 잘 기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농림부장관님으로서뿐만 아니라 여성 장관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될, 꼭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간 꾸준히 해 왔는데 우리 농림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설계가, 법적 근거가 없느니 예산 사정이 어떠느니…… 정작 우리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저는 대책을 못 세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 사병의 경우는 지금 월급이 210만 원이 막 넘어가는데 어떻게 후계농업인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군인보다도 더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지켜야 되는 농업 역군 아닙니까? 그러면 군 사병보다 더 지원해 줘야 되지요. 사병만큼도 지원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사병은 옷도 입혀

주지요 먹여 주지요 재워 주는데, 그것을 비용으로 다 환산하자면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계농업인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근본적으로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농업·농촌을 좀 만들어 주십사, 특히 여성 장관으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아주 특별한, 특별한 대책 주문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여성농업인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금주 위원님께서 주질의를 못 하셨기 때문에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민들의 요즘 불만을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문금주 위원** 충분히 아실 것으로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면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전 정부에 대한 농정을 면밀히 평가를 해 보고 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고 과에 대해서는 새롭게 새로운 국정철학,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서 다시 업무를 재수립하고 재설계하고.

그러고 나서 농민들에게 다시 평가를 받고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난 정부에 대한 과를 제대로 전 정부에 있었던 우리 장관님께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돼야 여기 계신 야당 위원들도 설득이 가능하고 농민들도 설득이 가능하고 또 재정 당국도 설득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해쳐 나가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그 과도 반성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대통령님의 철학이기도 한데 또 있어서 계속해야 될 것들은 더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예전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대해서 몇 점 주느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는 9점을 주셨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기 쌀값 80kg, 한 가마 20만 원 유지를 저희들은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장관님은 수요·공급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을 살짝살짝 바꿔 가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기 쌀값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금주 위원**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은 쌀……

○**문금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 지금……

위원님, 지금 하여튼 쌀을 지난해에 저희가 추가 생산량보다 많이 매입을 해서……

○**문금주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말씀에 대해 대답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농민들을 설득을 하시겠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쌀 수급 안정은 저희 정책의 거의 절반 차지합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저희들이 줄기차게 수확기 추곡 수매 당시에 쌀값 20만 원 유지해 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 변화를 표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장관님 앞으로 우리 민주당 여당 위원님들하고 함께하시려면 또 하나 바뀌어 줘야 할 게 엊그제 우리 주철현 위원님이 농망법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사과를 한 적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근거 자료를, 자료제출 요구는, 자료를 안 가져오셨어요.

사과하신 적 없지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얼렁뚱땅 말로 넘어갔으면 이제는 우리하고 같이 못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우리 위원님들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들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부탁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님 공약이 솔직히 그동안 장관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게 많아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식량안보 보장하겠다는 공약 또 농업재해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 전부 다 지금 장관님의 그동안 생각하고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저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게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생산비가 많이 급등해 있기 때문에 생산비 보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전혀 지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저는 조금만……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야지, 마무리.

○**문금주 위원** 그런 부분에도 이제는 윤석열 정부 농정하고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

서 생산비 급등, 생산비 보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부 예산에 담아 놓지 않으면 저는 이것 농민들 절대 용납 못 할 것이다. 필요하면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기재부 설득을 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장관님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직을 던져서라도 기재부하고 재정 당국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럼요.

○**문금주 위원** 저희들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약속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앞으로 정부 예산에 꼭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주질의를 못하셨기 때문에……

○**문금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어기구** 더 있어요?

○**문금주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17초 남았는데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주질의를 못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배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원택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차관님 청년농·후계농과 관련해서요 사실 인원은 많고 자금은 적고 이 형국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도 바꾸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3만 명 육성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부하가 걸릴 거다, 속도 조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온 청년농이나 후계농들이 결국은 부채를 안고 돌아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후계농과 관련된 조기정책자금이 소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하반기에……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겠다고,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온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후계농과 청년농 정책에 대한 수정·변화 그리고 올해 필요한 추경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도 아까 이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가공협회 관련해서 쌀가공 산업이 사실 한번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일어서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가공협회 입장에서는 공공비축미가 원료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축소해 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취지나 뜻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K-Food를 육성하겠다 이런 건데 그중에 쌀도 중요한 K-Food 요소 중의 하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매우 중요합니다.

○**이원택 위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략 수정이랄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어떤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신곡을 가공할 때도 써라라는 게, 저희 쌀농가들을 생각하면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좀 줄여 나가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또 쌀가공 업계 입장에서는……

○**이원택 위원** 제가 볼 때 신곡으로 가공하자는 것 취지나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격 때문에……

○**이원택 위원** 신곡으로 해서 수요·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은 다른 대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신곡의 가격이 다운돼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것은 한번 전략 수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원택 위원** 해수부장관님, 차관님……

차관님, 아까 해수부 이전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시사항이고 우리 당의 공약사항인데 신중하지만 또 신속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접근해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다 설득은 안 되겠지만 절차도 좀 정확하게 밟고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전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주신 말씀 유념해서 검토하고 방안이 수립이 되면 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관님. 해수부장관님 한말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속기록 수정 혹은 삭제 요청을, 이병진 위원님 의견을 받고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중 언급하신 것 중에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데 2개월 걸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해수부는 그 정도의 권력을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받고 싶어 가지고요. 속기록에 어떻게 표기하는 게 좋은지 해 가지고요.

○**이병진 위원** 2개월 걸렸으니까 그 정신을 반들어서 빨리하라 이런 얘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수정을……

○**이병진 위원** 그럼요, 어떻게 수정하든. 빨리 대통령 공약이니까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부산으로 이전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공약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간사님도 말씀 주셨듯이 신속하게 신중하게, 신중하되 신속하게.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요. 그래서 부산광역시에 크게 도움이 되고 국가 전략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는……

○**이병진 위원** 모멘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도 그 한 예 중의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한 내용들은 아까 이만희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모두가 알고 싶어 하니까 같이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실로 부탁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부산 안 되면 제주로 오세요, 한 달 내로다가.

○**위원장 어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종덕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26일 예결소위를 마친 후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 ○**출석 위원(14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이만희 이병진  
이원택 임호선 전종덕 조경태

### ○**출장 위원(2인)**

임미애 정희용

○첨가 위원(3인)

윤준병 조승환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정욱

식품산업정책관 주원철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식량정책관 변상문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운영지원과장 이승한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수산정책실장 홍래형

해운물류국장 허만욱

해사안전국장 최성용

항만국장 남재현

정책기획관 권순욱

해양정책관 김명진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수산정책관 서정호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89)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0)

이상 4건 6월 23일 회부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6)

이상 5건 6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2)

이상 4건 6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